

**“THE COMPARISON OF LONG VOWELS IN KOREAN AND TURKISH”**  
**“한국어와 터어키어의 장모음에 관한 연구”**

**EBRU TÜRKER**

**- Abstract-**

There are some similar phonological properties shared by different languages. The phenomenon of vowel length is just one of them which shows distinctive futures. In some languages long vowels serve to differentiate meanings. In that case the phonological context it creates is important and so it ha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phonemic inventory of the language, otherwise there will be misunderstanding. In this paper I will try to explain the Turkish vowel system as well as the Korean, and then to show how long vowels take their forms in Turkish and Korean.

**1. 터어키어와 한국어의 모음 체계**

**1.1. 터어키어**

터어키어의 음소는 모두 29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8개가 모음이고, 나머지는 자음이다. 이 8개의 모음은 모두 다 단순모음이다. 터어키어의 모음은 다음과 같다.

- |          |          |
|----------|----------|
| 1) a [a] | 2) e [ɛ] |
| 3) ı [ɯ] | 4) i [i] |
| 5) o [o] | 6) ö [ø] |
| 7) u [u] | 8) ü [y] |

위에서도 보듯이 터어키어 모음은 전설모음과 후설모음, 개모음과 폐모음,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약모음과 강모음으로 분류된다.

**1** 혀의 위치에 따라

전설모음: [ɛ], [i], [ø], [y]

후설모음: [a], [ɯ], [o], [u]

**2** 혀의 높이에 따라

개모음: [a], [ɛ], [u], [y]

폐모음: [ɯ], [i], [ø], [ø]

**3** 입술의 형태에 따라

평순모음: [a], [ɛ], [ɯ], [i]

원순모음: [o], [ø], [u], [y]

**4** 약모음 : [ɛ], [i], [ø], [y]

강모음 : [a], [ɯ], [o], [u]

위에서 네 번째에 보인 약모음과 강모음에 따라 터어키어의 모음 조화 체계가 구성된다.

## 1.2. 한국어

반면에 한국어의 모음은 다음과 같다.

- |              |               |
|--------------|---------------|
| 1) ㅣ [i]     | 2) ㅔ [e]      |
| 3) ㅚ [ɛ]     | 4) ㅓ [a]      |
| 5) ㅜ [o]     | 6) ㅜ [u]      |
| 7) ㅡ [ɐ]     | 8) — [w]      |
| 9) ㅟ [ɥi, ø] | 10) ㅟ [wi, y] |

터어키어의 모음 체계와 한국어의 모음 체계간에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차이가 있다.

터어키어와 한국어의 모음수와 성격이 다르다. 1 : 1 로 대응이 어렵다. 터어키어의 단모음은 8개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어의 모음은 학자들에 따라 단모음 8개 내지 10개와 이중모음 12개로 나뉜다. 위의 1) ~ 8) 번 모음은 단순모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9) ~ 10) 번 ‘ㅟ’, ‘ㅟ’ 는 단순모음으로 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소리 값은 표준말과 방언에서 차이가 있어서, 단순모음일 때는 [ø], [y]로, 이중모음일 때는 [ɥi], [wi]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단순모음인 [ø], [y]로 발음될 때는 터어키어의 [ø], [y]와 각각 대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이중모음 [ɥi], [wi]로 발음될 때에는 터어키어에 대응되는 모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터어키어의 [ɛ]에 대응하는 한국어 모음은 두 개가 있다. 한국어의 모음에서 이 모음은 위에서 보듯이 ㅔ [e]와 ㅚ [ɛ]로 구성된다. 둘 중에서 음성적으로 터어키어의 [ɛ]에 제일 가까운 음은 ㅔ [e]이다.

또한 한국어의 ㅓ [a]는 터어키어의 모음들 중에서 대응되는 모음이 없다.

## 2. 터어키어와 한국어에서의 장·단 모음 대립

지금부터 터어키어와 한국어의 장·단 모음 대립 현상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 2.1 터어키어

\*1) ‘adet’ [adet] Ar.2) ((수)개)

\*‘hala’ [hala] Ar. (고모)

1) ‘\*’ 는 차용어라는 표시이다.

2) Ar. : 아랍어에서 차용한 단어임을 표시한다.

Fr. : 불어에서 차용한 단어임을 표시한다.

Pers. : 페르시아어에서 차용한 단어임을 표시한다.

\*‘adet’ [ɑ:dɛt] Ar. (관습, 풍습)

\*‘hala’ [hɑ:lɑ] Ar. (아직, 아직도)

\*‘alem’ [ɑlɛm] Ar. (국기)

\*‘varis’ [varis] Fr. (정맥류(종창))

\*‘alem’ [ɑ:lɛm] Ar. (세계)

\*‘varis’ [vɑ:ris] Ar. (상속인)

## 2.2 한국어

말 (말:) [ma:l] &lt;언어&gt;

\*선우 (서누) [sʌnu] / 鮮于

말 (말) [mal] &lt;동물/ 쌀 열—&gt;

\*선우 (서:누) [sə:nu] / 善友

\*말 (말) [mal] / 末, 抹

밤 (밤:) [pa:m]

\*장사 (장:사) [tsa:ŋsa] / 葬事, 壯士

밤 (밤) [pam]

장사 (장사) [tsaŋsa]

\*감사 (감:사) [ka:msa] / 感謝, 減死

눈 (눈:) [nu:n] &lt;-이 내리다&gt;

\*감사 (감사) [kamsa] / 監査, 監事

눈 (눈) [nun] &lt;-을 뜨다&gt;

\*모자 (모:자) [mo:dza] / 母子

\*기생집 (기:생집) [ki:sɛŋtʃip] / 妓生—

\*모자 (모자) [mo:dza] / 帽子

\*기생 (기생충) [ki:sɛŋtʃuŋ] / 寄生蟲

\*해당 (해당) [hɛdaŋ] / 該當

\*천인 (처닌) [tʃʌŋjin] / 天人

\*해당 (해:당) [hɛ:daŋ] / 害黨, 解當

\*천인 (처:닌) [tʃhə:ŋjin] / 賤人

봉 (봉) [poŋ]

\*유고 (유고) [ju:go] / 遺稿, 遺孤

\*봉 (봉) [poŋ] / 峯

\*유고 (유:고) [ju:go] / 有故

\*봉 (봉:) [po:ŋ] / 奉, 鳳

위에 있는 자료는 터어키어와 한국어에 장·단 모음 대립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국어의 경우에, 장모음으로 발음이 되는 낱말들은 한자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터어키어의 경우에는, 모두 다 차용어에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 3. 터어키어 장모음의 다른 특징

터어키어의 경우, 장모음으로만 발음이 되는 차용어들도 있으나, 이들과 대립쌍을 이루는 단모음 단어가 없다.

*'tatil' [ta:til] Ar. (휴가, 휴일)	*'damat' [da:mat] Pers. (사위; 신랑)
*'saha' [sa:ha] Ar. (분야; 넓은 곳)	*'arza' [aru:za] Ar. (고장)
*'rica' [ridʒa:] Ar. (바람, 원; 요구)	*'vefa' [vefa:] Ar. (충성)
*'mevzu' [mɛvzu:] Ar. (주제)	*'hukuk' [huku:k] Ar. (법; 법학)
*'mecbur' [mɛdʒbu:r] Ar. (필수적인)	*'tesir' [tɛ:si:r] Ar. (영향)
*'memur' [mɛ:mu:r] Ar. (사무원, 공무원)	*'icat' [i:dʒat] Ar. (발명)
*'şive' [ʃi:ve] Ar. (사투리)	*'itiraf' [i:tiraf] Ar. (고백, 실토)

이런 것들도 위에서 본 듯이 모두 다 차용어인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또한 터어키어 복합어의 경우, 즉 'hane' [hanɛ]란 단어와 복합된 경우, /h/가 탈락되고 /a/ 소리가 장모음으로 발음된다.

*'posta'hane' [postɑ:nɛ] Ital. + Pers.	(우체국)
*'pasta'hane' [pastɑ:nɛ] Ital. + Pers.	(빵집)
'yemek'hane' [yemɛkɑ:nɛ] Turk. + Pers.	(식당)
*'hasta'hane' [hastɑ:nɛ] Pers. + Pers.	(병원)

또한 터어키어 자음들 중에서 어중에만 나타나는 자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ğ' [ɣ]이다. 이 자음은 후음으로서 뒷혀와 연구개 사이에서 발음되는 후설자음이다. 이 자음의 특징은 그 앞에 오는 모음들을 장음화 시키는 것이다.

'ağaç' [ɑ:atʃ] (나무)	'ağız' [ɑ:uzʒ] (입, 입구)
'dağ' [dɑ:] (산)	'yağmur' [jɑ:mur] (비)
'eğitim' [ɛ:itim] (교육)	'sığ' [su:] (얕은)
'iğne' [i:nɛ] (바늘; 주사)	'yiğit' [ji:t] (용감한)
'oğlan' [o:lɑn] (아들)	'doğa' [do:ɑ] (자연)
'öğüt' [ø:yt] (충고)	'öğretmen' [ø:rɛtmɛn] (선생)
'öge' [ø:ɛ] (요소)	'uğultu' [u:ultu] (윙윙거리는 소리)
'düğme' [dy:mɛ] (단추)	

#### 4. 결론

터어키어와 한국어에 장·단 모음 대립이 있기는 하다. 터어키어의 경우에는 장모음으로 발음이 되는 낱말들은 모두 다 차용어이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차용어뿐만 아니라 고유어에서도 장·단 모음의 대립이 있다.

또한 터어키어의 경우, 특별한 환경속에서, 예를 들어, 'ğ' [ɣ] 앞에 오는 모음들은 길게 발음이 된다.

## 참고문헌

- Selen. N, (1979), "Söyleyiş Sesbilim Akustik Sesbilim ve Türkiye Türkçesi", TDK., Ankara Üniversitesi Basımevi, ANK.
- Demircan. Ö, (1979), "Türkiye Türkçesinin Ses Düzeni", TDK.
- Demirezen, M, (1988), "Effects of Borrowed Words on Turkish Phonology", Studies on Turkish Linguistics,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Ankara.
- , (1988), "Türkçe Sözlük 1-2", Türk Dil Kurumu Basımevi, Ankara.
- Lees, B.R., (1961), "The Phonology of Modern Standard Turkish", Indiana University Publications Uralic and Altaic Series, Vol. 6,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 이현복, (1991), "음성학", 탐구당.
- \_\_\_\_\_, (1992), "한국어의 표준 발음", 교육과학사.
- \_\_\_\_\_, (1989), "국제 음성 문자와 한글 음성 문자", 과학사.
- 김석득 / 이현복 / 유재원, (1993), "표준 한국어 발음사전", 어문각.